宣戦[[1]](#footnote-1)

　　　　　　　　　　　　　　　香山光郎

時は維昭和十六年

冬十二月の八日

有明の月は西に傾きて

太平洋の夜明方なりき

때는 바로 쇼와昭和 16년(1941)

겨울 12월 8일

새벽달은 서쪽으로 기울고

태평양의 새벽이 왔네

布哇島の東の端より

比律賓馬來の西の果にかけて

荒鷲の羽ばたき聞えて

爆彈の雨は降りぬ

하와이 섬 동쪽 끝에서부터

필리핀 말레이 서쪽 끝에 걸쳐

하늘의 용사 비행 소리 들리고

폭탄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네

この日雲の上に天つ聲あり

天が下に宣戰の大詔宣りたまふ

『東亞の禍亂を助長し覇業の非望を逞ふする』

米と英を討たせたまふと

이날 구름 위에서 하늘의 소리 있어

하늘 아래 선전宣戰의 대조大詔 내리시네

“동아東亞의 화란禍亂을 조장하고 분에 넘치는 패업霸業의 야망을 드러내는”

미국과 영국을 치랍시는

1. 『國民詩歌』1942年3月号　　9月創刊ではないか？ [↑](#footnote-ref-1)